

강경미 · 홍영빈 · 이재봉 · 장남기

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

남산의 주 식물군락인 신갈나무-팔배나무군락, 소나무 군락, 참나무 군락, 아까시나무 군락과 인간의 간섭이 심한 곳의 토양내 세포성 점균의 출현과 분포를 분석하였고 토양 환경요인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.

신갈나무-팔배나무 군락에서는 *Dictyostelium brefeldianum*, *Polysphondylium pallidum*, *P. violaceum*, *P. pseudo-candidum*이 분리되었고, 소나무군락에서는 *D. purpureum*, *D. mucrodies* var. *stoloniferum*, *P. tenuissimum*, *D. dimigraformum*, *D. implicatum*, *D. brefeldianum*, *P. pallidum*, *P. violaceum*, *P. pseudo-candidum*이, 참나무 군락에서는 *D. purpureum*, *D. parvisporum*, *D. polycephalum*, 아까시 나무군락에서는 *D. polycephalum*, *D. capitatum*, *D. brefeldianum*, *P. candidum*이 분리되었다. 인간간섭이 심한 팔각정부근과 매표소 부근의 토양에서는 *D. minutum*, *D. implicatum*이 분리되었다. 전체 출현한 종수는 14종으로 비교적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, polysphondylium 속에 속하는 종들의 출현 빈도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. 이 중 *P. pseudo-candidum*, *D. dimigraformum*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록되는 종이다.

토양의 pH, 수분함량, 유기물함량, 인산, 질소량과 같은 토양환경요인이 전체 개체수나 종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낮았으나 일부 종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.